

세계수영대회 합성·열기 이어가자

‘광주 수영선수권대회’ 창설

2020광주수영선수권대회·제1회 광주 마스터스대회 개최 ‘수영도시’ 이미지 각인...남부대에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유산(레거시)으로 가정 ‘광주 수영선수권대회’가 창설돼 수영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한수영연맹은 올해 2020 광주수영선수권대회와 제1회 광주 마스터스 수영대회를 개최한다.

대한수영연맹은 11월 12일부터 16일간 광주수영선수권대회, 7월 18일부터 이를 간 경영·다이빙·수구·아티스틱스위밍 종목 동호인 경연인 마스터스 대회를 남부대 시립 국제 수영장에서 열겠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제1회 광주마스터스수영대회는 경영과

다이빙, 수구, 아티스틱스위밍 등 4개 종목이다. 시는 2000여명의 수영 동호인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 광주시가 세계수영대회 개최 후 1년을 맞는 7월에 두 대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수영연맹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1주년 행사로 뜨거웠던 열기를 상기시키고 수영 도시로서 광주의 이미지도 각인시키고자 하는 바람에서다.

대회 규모와 일정은 이날 말 열리는 대한수영연맹 총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영연맹과 적절한 개최 시기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핵심 레거시 사업인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연말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된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에는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광주시 공유재산심의와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영진흥센터에는 국비 138억원과 시비 352억원 등 모두 49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연면적 1만2000㎡(건축면적 6000㎡ 이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센터에는 국제규격 50m 경영풀, 국제스포츠대회 기념관, 각종 편의시설 등이 들어선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던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합성을 다시 듣기 위한 각종 레거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 ‘코로나19’ 안정세...전남 확진자 완치

16번·18번 환자도 안정적 치료...10일 연속 확진자 없어

광주·전남에서 첫 완치 판정이 나오는 등 코로나19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전남 첫 확진자였던 남성은 지난 15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을 앞두고 있다. 지난 4, 5, 6일 지역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0일 연속 확진자도 없다.

1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5일 전남 첫 확진자 A(46·남·22번 확진자)씨에 대해 격리해제 결정을 내렸다. 지난 6일 확진자 판정을 받고 조선대병원에서 격리돼 치료를 받았던 그는 증상 호전 후 지난 11일과 13일께 시행된 실시간 유전자 증폭(RT-

PCR) 검사에서 2차례 연속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17일 의료진이 최종적으로 상태를 확인한 뒤 퇴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A씨는 한때 미열 등 감기 유사 증세가 있었으나 현재는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안다. 조선대병원 의료진 판단 아래 곧 퇴원조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광주의 첫 확진자인 16번환자(여·42)와 그의 딸 18번환자(20)도 전남대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모든 모두

상태가 안정적”이라면서 “곧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광주는 자가격리자 241명이며, 전남은 자가격리자 33명, 모니터링 대상자 25명이다. 모니터링 대상자는 중국 등 코로나 19 발생국가 방문 이력을 가진 지역이며 현재 특이사항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남도 관계자는 전했다.

전국적으로는 이날 해외여행력이 없는 82세 한국인 남성이 추가돼 2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9명이 완치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됐다. 세계적으로는 29개국 6만9195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1669명이 사망했다. /김형호 기자 khh@



시민 불안 해소...양동시장 방역 16일 광주 양동시장 휴무일을 맞아 방역 관계자들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집중소독을 하고 있다. /최한배 기자choi@

광주주먹밥 전문점 1호 ‘밥콘서트’ 오픈...브랜드화 ‘속도’

5180세트·상추튀김 등 16종 판매...광주의 맛 선보여

광주시가 광주 대표 음식 중 하나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광주주먹밥의 브랜드 상품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주먹밥 전문점(1호점) ‘밥콘서트(Bob Concert)’가 영입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에 자리잡고 있는 ‘밥콘서트’는 5180주먹밥세트를 비롯한 16종의 주먹밥 메뉴와 차돌박이편백찜, 불고기떡볶이, 해물찜 등 다양한 곁들임 메뉴를 판매하고 있다.

대표메뉴인 5180주먹밥세트는 매일 무

작위로 결정되는 주먹밥 2종류와 광주대표음식 중 하나인 상추튀김, 멸치국수, 떡볶이, 셀러드 등이 어우러져 푸짐하고 다채로운 광주의 맛을 선보이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위해 가격을 5180원(부가세 제외)으로 책정한 것도 눈에 띈다.

이 밖에 도 무등산나물주먹밥, 주먹밥과 달걀로 눈사람을 꾸며낸 낙지볶음주먹밥, 여럿이 함께 먹을 수 있는 플라워주먹밥, 아이들의 입맛을 고려한 돈가스주먹밥 등 16종의 주먹밥 메뉴를 만나볼

수 있다.

광역밥콘서트 대표는 “주먹밥이라는 생소한 음식을 주메뉴로 정하는 과정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광주에서 주먹밥이 갖는 의미와 가능성을 믿고 주먹밥 전문점을 시작하게 됐다”며 “광주주먹밥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미향 광주의 맛과 멋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는 전문가 레시피 11종과 시민공모 레시피 20종을 개발해 8곳의 판매업소에 보급했으며, 이들 업소에서는 차별화된 주먹밥 메뉴가 판매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북한 ‘대북개별관광’ 첫 언급...“美 간다고 해결될 문제 아냐”

‘외세 의존’ 대남 비난 연장선...직접적 평가는 안해

북한이 16일 올해 한국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대북 개별관광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해 눈길을 끈다.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이날 ‘외세에 구걸하여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 당국이 외세에 게 빌붙어 북남관계 문제를 풀어나가려 무던히도 분주당을 피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을 비롯한 당국자들은 미국에 날아가서 ‘대북개별관광’과 관련한 모의판을 벌여 놓았다”며

“남조선 외교부 당국자는 미 국무성(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부대표와 ‘한미실무회담’을 열고 저들의 ‘대북제안’에 대한 상전의 승인을 얻어보려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매체는 해당 협안들이 “구태여 대양 건너 미국에 간다고 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 민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족 내부 문제에 사사건건 끼여 들어 휘방을 놓는 미국에 가서 과연 무엇

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는 ‘외세 의존 정책’에서 탈피하라고 요구해온 대남 비난 기조의 연장선이지만, 북한 매체에서 ‘대북 개별관광’이란 표현이 등장한 것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은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다만 이날도 대북 개별관광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없었다.

일단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는 한편 내달 한미 연합훈련이나 북미 상황 등을 지켜 보면서 남측의 개별관광 제의 호응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정부 “日 크루즈 탑승 한국인 14명 이송 추진”

폐렴환자 대상 ‘코로나19’ 조사

코로나19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6일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승선한 한국인 가운데 귀국 희망자가 있다면 국내 이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는 이날까지 승객, 승무원 등 35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크루즈선에 탑승한 한국인은 승객 9명, 승무원 5명 총 14명이다. 일본 정부는 탑승자 전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은 탑승객을 하선시킨다는 계획이다.

박능후 중수본 본부장은 “19일 이전이라도 일본 당국의 조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우리 국민 승객 중 귀국 희망자가 있다면 국내 이송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러 “(크루즈선에 탑승한) 우리 국민 의사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일본 정부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귀국 여부와 관계없이 크루즈선 내에 있는 국민들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상시연락과 편의 제공 등 영사 조력을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NHK와 교도통신은 이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70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포 가스노부 일본 후생노동상은 이날 NHK의 시사 프로그램인 ‘일요토론’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일 다이아몬드 프린세스가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이후 지금까지 크루즈선 탑승자 약 3700명 중 355명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다. /연합뉴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정부가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일부 폐렴환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책을 계속 논의해왔다”면서 “현재 병원에 입원하신 분 중 폐렴환자에 대해 (코로나19 감염을) 확인·조사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검사법에 대해 정 본부장은 “호흡기학회, 감염학회와 논의하고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리가 되면 이른 시일 내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 대지 14,916.9㎡, 건물 998㎡(H비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 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 건물 일부 임대 중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약 700㎡)

※ 매매가 25.5억 ※

인 하 건 설(주)
010-3605-0214
062)655-484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직원 채용 모집공고

당사는 전국 지역 영업망 구축과 설계·영업 업무를 담당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채용 직종	채용 인원	업무 내용
영업직	0명	합성목재 영업
설계직	0명	합성목재 데크 및 울타리 설계

전국 지사 및 지사장 협력업체 모집 안내

당사는 조달청 우수제품(합성목재), 다수공급자계약제품(합성목재, 디자인형울타리, 방음벽) 전문제조회사로 전국의 지역별 총판(관급 영업 및 협력시공업체)을 모집합니다.

- ☑ 모집지역 : 전국 시·군구
- ☑ 자격 및 우대사항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영업경험을 보유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광고서 남품경력자, 시공경력업체 등
- ☑ 주요 아이템 : 합성목재 데크재, 디자인형울타리, 방음벽, 도로시설물, 데크로드시스템, 확장형인도교
- ☑ 문의 및 접수 : (주)에니우드·(주)이노스 마케팅팀 ☎ 033)746-8953 / anywood1201@naver.com

www.any-wood.com

조달우수제품 / 특허 / 성능인증 / 녹색기술 / 환경표지 / KS인증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 (6개월 과정)

- 일 시 : 2020. 3. 3(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 2020. 2. 25(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